

세계관운동의 나아갈 길

지난 2010년 8월 9일~11일까지 대구에서 2010년 임원가족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통합 1주년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을 나누는 귀한 시간 가운데 특강을 맡아주신 전광식 이사의 강의내용을 회원들과 나누고자 정리하여 실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세계관 운동이 원론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국 교회사에 어떤 의의가 있는지, 그리고 이후, 우리가 세계관 운동에 있어 무엇에 주력해야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강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세계관입니다. 인생관, 우주관, 가치관 등 다양한 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관은 관념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중국학자들은 인간이 본다는 것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볼 견(見)입니다. 견(見)은 그저 우리가 의식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기차를 타고 여행할 때, 창밖에 들어오는 풍경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볼 시(視)입니다. 시(視)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보려고 하고, 보려는데 자기의식이 작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음악회를 관람하거나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관(觀)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눈을 감아도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견(見)과 시(視)가 눈으로 보는 것이라면 관(觀)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기에 마음의 보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은 관념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계관을 논할때 관념적으로만 논의해도 될까요?

독일 근대 논의에서는 세계관을 관념적으로만 보고 오류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세계관은 단순히 개념적으로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관에서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의 현실세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계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관념적으로만 논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온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20-21세기는 번영과 야만이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공동체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삶의 작은 영역에서 보여준 것이, 우리가 가르친대로 사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 한편으로 우리는 어느 시대와 비할 수 없는 고도로 발달된 기술 산업 문명 시대에 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쟁과 대량학살, 생태계 파괴와 인간의 몰화 등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기차 레일에 비유한다면, 기차가 두 선로로 달리듯이 우리가 타고 가는 기차는 하나는 문명화, 하나는 야만화의 상반된 선로를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지배한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20-21세기는 소위 다양성의 세대이지만, 20세기를 지배한 것은 다 음과 같은 세 가지 세계관입니다.

20세기만큼 과학이 발전하고 위력을 발휘한 적이 없었습니다. 과학은 한편으로 과거 종교나 철학이 설명하던 것들을 대체하여 이제 유일한 진리의 표준, 유일한 설명자가 된 듯합니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진화론과 같은 과학의 주장이 진리로 교육되고 있고, 또 다른 한 편에서는 과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과거에 체험하지 못한 문명의 첨단을 체험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과학적 세계관이 이 세대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과학적 세계관은 경험과학을 뜻하는데 경험과학은 반드시 시공간에서 경험되는 세계만 학문의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유일한 실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경험되지 않는 초월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세계관을 가진 이들에게 초월계는 없으며 하나님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1, 2차 세계대전에서 싹튼 세계관으로 실존주의적 세계관입니다. 20세기 전반을 보면, 대중들에게 영향을 주던 철학자들이나 문학가들까지 실존주의의 그늘에서 벗어난 사람이 드물 정도로 실존주의는 그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전쟁 속에서 부조리, 모순, 한계 상황을 경험하며 특별히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즉, 신정론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그 답으로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7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으로 포





스트 모던적 세계관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포스트모던을 짧게 정의해보자면 절대성을 거부하고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모더니즘 시대에는 모든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모더니즘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유신론을 절대적으로 주장했고, 이를 반대했던 계몽주의자들이 하나님은 없다는 무신론적 절대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주의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20-21세기, 혼란기의 세계관은 하나님이 없다는 과학적 세계관, 하나님은 죽었다는 실존주의 세계관, 그리고 존재 여부에 의미를 두지 않는 포스트 모던적 세계관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20-21세기를 지배한 이 세 가지 세계관의 공통적인 의미는 무신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부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관이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세계관이 이론으로만 끝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람들의 삶을 유도하고, 사람들에게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허무주의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존재의 기반이 없어지는 것이기에 인간의 삶이 허무하고 맹목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60년대 히피부터 오늘의 자살신드롬까지의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시는 없습니다. 계시가 없다는 것은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론적인 허무주의가 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 다윈주의, 상대주의를 초래합니다.

이제 기독교세계관 운동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세상을 하나님 없이 이해하는 주장에 대해, 하나님 없이는 세상의 기원과 과정과 목적, 인간의 기원, 과정 목적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설명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의 존재의 목적과 삶을 이해하도록 하는 주장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무신론이 팽배해 허무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주권자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해온 세계관 운동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1. 외국의 저작에 많이 의존적이었습니다. 이론에 있어 독창성이 결여되었고, 한국적 삶의 이해가 부족해 이론과 적용의 괴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외국의 이론은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세계관 운동이 인문학적 담론으로 흘러갔습니다. 학자적인 논의로 학자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합니다.
3. 세계관 운동이 개인변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대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 목회자들의 무의식, 무관심으로 교회적 수용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 자라나는 중,고등생들에게는 세계관 교육이 중요한데 그들에 대한 교육이 미미했고, 평신도들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6. 운동의 목적대로 관점 변화는 이루어졌으나, 삶의 변화로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삶의 변화로의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걸림돌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강의의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운동을 어떻게 전개시킬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1. 세계관 운동은 성경적 운동이기 때문에 신학적 기초가 성경적으로 바르고 든든해야 합니다. 혼합주의라던지 성경을 비판하는 관점이 들어오면 변질되기 쉬운 것입니다. 무너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른 것인지 자기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2. 세계관 운동 본래의 취지를 알고, 이를 탐구하는 단계에서 인격과 삶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관점의 논의로만 끝나지만, 관점이 바뀌어서는 기독교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관이 철저히 형성되어 있더라도 내가 기독교적으로 현실에 살아가는 것은 관점 변화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관점이 형성되어 죄를 죄로 알지라도 죄의 파위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관점형성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세계관 운동에서 누락되어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삶에서는 달라진 부분을 찾을 수 없었던 주된 이유입니다. 어쩌면 기독교 세계관 훈련을 받은 사람보다 삶에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더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기도, 말씀, 능력운동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한국적 토양에 대한 인식과 논의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바른 기독교 세계관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4. 교회와의 유대관계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를 후원단체로만 인식하지 않고, 봉사하는 단체로 인식하면, 후원은 자유자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교회와의 유대성이 약해지면 그 영향력이 약해질 것이고 지나치면 목회자들이 탈 교회 운동으로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5. 차세대 교육에 대한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보더라도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한국사회와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관 운동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공동체 의식, 세계관 형성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맞춤 교재가 없습니다. 교재개발이 결정적입니다.

6. 우리 자체의 운동을 내실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될 것인가?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역량을 내실화해서 영향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7. 타 운동과의 연계도 모색해야 합니다. 하나의 운동은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다른 운동과 연합한다면 세계관 운동이 다양한 운동의 중심점이 될 수 있

지 않을까요?

8. 한국사회에서의 방향성제시를 (청년, 한국사회 비전 등)할 수 있는 큰 시각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9. 문화에 대한 변증은 꾸준히 이뤄져야 합니다.

10. 아시아 기독교 세계관 흐름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파송된 사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는 보다 적게 고민합니다. 우리의 운동을 앞으로 아시아와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들의 선교운동과 결부해, 복음과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확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공동체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삶의 작은 영역에서 보여준 것이, 우리가 가르친대로 사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세속적인 것을 교회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붙잡혀 열매를 맺게 해야 합니다. 우리 운동이 한국 사회에서의 열매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가는 많은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글. 전광식 고신대 신학과 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효(孝)교육 지도사 및 강사 양성교육 효강사 자격증 취득과정(1기)

오시는 길



최정성 목사

오늘의 세계는 물질문명이 극대화되어 가고 핵가족화되면서 도덕과 윤리가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교명화 사회가 시작되면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2007년 7월 20일에 효행장려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실천 내용으로 2011년부터 초·중·고 과정에서 효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사단법인) 부모사랑운동본부 인천 지부를 설립하고 효교육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귀하를 정중히 모시고자 하니, 개원식에 부디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개원식

일시: 2010년 10월 16일(토), 오후 2시

장소: 인천효교육원(한국효교육문화센터)

● 표어: “효” 교육과 문화를 통해 민족통일 공동체를 이루자

개강일: 2010년 10월 21일 개강(1기)
2011년부터 초·중·고 의무 교육

3개월 교육수료 후
효지도사 및 강사 자격 취득(심화과정)

원서접수: 2010년 10월 4일(월) - 10월 20일(수)까지
강의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까지(12주 과정)
교 육 비: 60만원(교육비는 장학금 혜택 있음: 교육수료 우수자)
교육장소: 사단법인) 부모사랑운동본부 인천지부(인천효교육원)
신청조건: - “효”교육에 관심있는 전문대학, 일반대학교, 대학원 졸업자
- 교사, 교감, 교장출신, 대기업 임원, 공직자 출신, 군(위,령관급)
- 목회자(목회경력 10년 이상), 목회자 사모,
- 기타(본원에서 효강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
특 전: 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본원에서 지정된 요건을 갖출시 지부 설치 및 교육원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전 화 : 032) 555-6422 / 567-9394,
(Fax) 032) 282-3023
· 상 담 : 010-3917-9125(지부장)
017-346-3686(원 장)
· E-mail : kang9394@hanmail.net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86-4번지
계정빌딩 3층(인천효교육원)

사단법인) 부모사랑운동본부 인천지부장 강준근 / 교육원장 최정성 박사

www.bumosarang.or.kr